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1. 25(월) /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항공기술과	담당자	· 과장 민풍식, 사무관 원정윤, 주무관 박일훈 · 김은혜 · ☎ (044) 201-4284, 4285, 4289, 4292
	항공운항과	담당자	· 과장 오성운, 사무관 권시홍, 주무관 장여진 · ☎ (044) 201-4259, 4273, 4293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내 보잉 737NG 항공기(150대) 전수점검 조기 완료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국내 운영 중인 737NG 150대에 대한 점검을 보잉사·FAA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강화하여 11월 25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.

* 미국 연방항공청(FAA)이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737NG에 대해 누적비행횟수에 따라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('19.10.3)



< 국내 737NG 항공기 점검 현황('19.11.25 기준) >

점검대상	누적비행횟수 3만 이상	누적비행횟수 22,600~3만미만	누적비행횟수 2만~22,600미만	누적비행횟수 2만 미만	합계
점검 대상	42	22	15	71	150
점검 완료	42	22	15	71	150
균열 발생	9*	4*	0	0	13

* 동체 균열 발생(13대) : 대한항공 5, 진에어 3, 제주항공 3, 이스타항공 2

- 지난 11월 10일까지 총 100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, 이중 균열이 발견된 13대를 즉시 운항중지 조치한 바 있으며,
- 11월 10일 이후 나머지 50대 항공기에 대해서는 11월 25일까지 모두 점검을 완료하였고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아울러, 보잉사·FAA가 제기한 점검부위 확대(당초점검 인근부위)에 대해서도 150대 모두 점검을 완료하였으며, 추가로 발견된 균열은 없었습니다.

- 국내 균열 항공기 13대 중 2대(진에어 1대, 대한항공 1대)는 수리를 완료하고 각각 운항을 재개(11.19일과 11.22일) 하였으며, 나머지 11대도 순차적으로 내년 1월까지 수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
- 추가로, 항공사에서 신규 737NG 도입 시 균열 점검을 선수행토록 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, 최근 티웨이항공에서 추가 도입(11.14일)한 B737-800 항공기 1대의 경우 사전 균열점검을 실시한 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.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균열 항공기 수리 후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고, 이번 점검 시 문제가 없는 보잉 737NG 항공기도 동 점검부위를 3,500 비행횟수 이내 마다 반복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·감독할 예정입니다.

	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항공기술과 원정윤 사무관(☎ 044-201-4285)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	